

EIAK 전자 의료 기기 산업 협의회

전자 의료 기기 산업 협의회 발족

본회(회장: 구자학)에서는 9월 6일 11층 회의실에서 상공부 남충우 전자정책과장과 두산산업, 삼성의료기기, (주) 메디슨, 종이기계 등 국내 전자 의료업계 9개사 대표가 모여 전자 의료기기 산업 협의회를 발족시키고 초대 회장에 김준경씨(두산산업(주) 대표이사)를, 감사에는 이민화씨((주) 메디슨 대표이사)를 각각 선임하였다.

동 업계가 전자 의료기기 산업 협의회를 구성하게 된 것은 전자 의료기기 산업이 향후 선진 복지 사회의 실현을 주도해 나가고, 전형적인 연구기술 집약형 산업으로 장차 우리나라를 기술입국으로 선도해갈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산업에 비해 매우 취약한 상태에 놓여져 있어 관련 업계가 힘을 합쳐 동 산업 육성에 이바지하는 데에 비롯된 것이다.

앞으로 전자 의료기기 산업 협의회는 필요에 따라 자문위원회, 영상기기, X선, 생체기록 및 분석분과 위원회 등을 설치, 운영해나갈 계획이며, 리스지원제도, 국민복지 의료기기 위탁

개발제도 등의 정책 제안 사업과 국산 의료 전자 기기 보급 확대, 연구 개발 촉진 산업 등을 적극 펼쳐 나갈 계획이다.

공장자동화·정보화 세미나 개최

본회는 9월 4일(수) KOEX 대 회의실에서 공장자동화·정보화 추진 협의회(동 협의회 회장: 삼성항공 산업(주) 안시환 사장)가 주관하는 세미나를 개최했다.

동 협의회 감사인 보암산업(주) 노시청 사장은 개회사를 통해 국내 업계의 노사 분규, 임금 상승, 생산 인력 부족 등으로 수출 환경이 그 어느 때 보다도 어려운 때라고 전제하고 우리 업계의 원가 절감과 생산 성향상 그리고 생산 기능 인력 부족 등을 타개하기 위해 자동화·정보화에 대한 관심을 더욱 쏟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는 자동화·정보화에 관한 지원 제도 설명, 자동화·정보화의 실무 경험·추진 기법, 최근의 자동화 정보화에 관한 주요 내용이었다. 한편 동 세미나의 주제별 연사는 다음과 같다.

<세미나 Progra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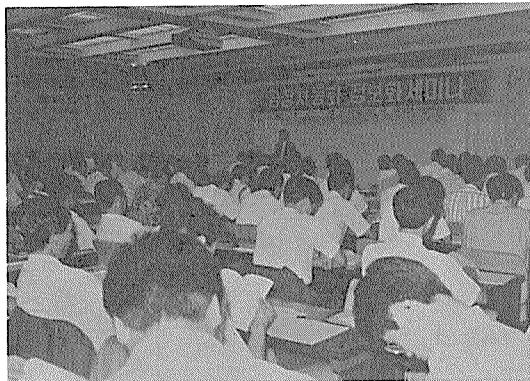
주 제	연 사
• 개 회 사	노시청(협의회 대표: 감사) 보암산업(주) 대표이사
• 자동화 정보화 실태 및 지원 제도 설명	박재인(협의회 간사) 전자공업진흥회 부장
• 자동화 정보화 추진 전략	안문영(주) 인터컨설팅 전무 이사
• Coffee Break	



주 제	연 사
• 생산공정의 자동화 및 정보화 기술의 진화	고 명 삼 서울대학교 교수
• 최근의 자동화 정보화 기술동 향과 전망	김 광 선 (주) 삼성항공 차장
• 자동화 정보화 추진 실무경험 사례발표	강 명 원 (주) 우영 이사
• 종 합 토 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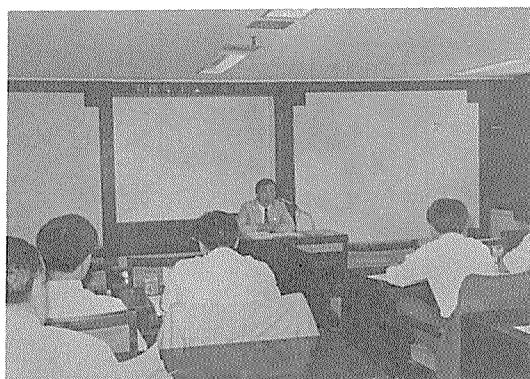
○주최: 한국전자공업진흥회

○주관: 공장자동화, 정보화추진협의회



북미 자유무역협정(NAFTA) 설명회 개최

본회는 현재 협상진행중인 미국, 캐나다, 멕시코간의 북미무역협정 체결시 EC시장의 단일화와 더불어 국제환경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아 8월 28일 본회 대회의실에서 산업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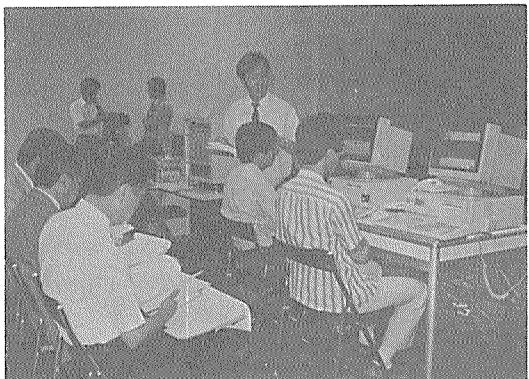
구원 유학상 박사를 연사로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 설명회는 NAFTA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향후 한국전자산업계의 효과적 대응책의 일환으로 열렸는데 이날 설명회는 NAFTA 추진의 미와 국제무역환경에 미치는 영향, 미·멕시코 FTA협상 진전상황, NAFTA가 한국전자산업에 미치는 영향, 북미지역 투자진출시 유의사항 등에 관련된 것이 주요 내용이었다.

전자부문 신제품경진대회 출품제품 심사

본회는 '91년 9월 4일 KOEX별관 제5전시실에서 전자부문 신제품 경진대회 출품제품 심사를 마쳤다.

본 경진대회심사는 심사진행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예비심사와 본심사를 구분하여 심사하고 예비심사는 분야별 심사위원이 입상후보를 선정하여 본심사대상으로 추천심사토록 했다.



본 심사는 이러한 예비심사에서 선정된 제품을 대상으로 심사하여 수상자를 결정하게 되는데 이번 전자부문 신제품경진대회는 산업용기기 10개사 11점, 가정용기기 7개사 12점, 부품 8개사 9점이 출품 총 24개사에 32점이 출품, 뜨거운 각축을 벌였다. 이번 신제품경연대회는 최우수상 3명(상공부장관상), 우수상 6명(진흥회장상), 장려상 6명(진흥회장상)으로 수상하게 되는데 시상식은 10월 17일 제22회 한국전자전람회에서 발표 및 시상할 예정이다.